



비전대 김태훈씨, LINC 3.0 어워드 우수 직원 선정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훈 직원이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산학협력 EXPO'에서 LINC 3.0 어워드 전문대학 직원분야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직원은 지난 LINC사업 1~2단계에 참여해 대학의 체질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바꾸고 사회맞춤형학과 체계 정착에 기여했다. 또 2022년부터 LINC 3.0 사업에 참여, 사업수행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링크 어워드 직원분야에 선정됐다. 김태훈 직원은 "산학협력 기반의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및 LINC 3.0 사업의 우수 성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학협력 엑스포 참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2~4일 3일 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산학협력 엑스포'에 참가해 성과를 뽐냈다. 2022 산학협력 엑스포는 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개발한 우수 작품인 3D 공간캡쳐 기반 VISION Meta Veristy(비전캡처스카닝부어), 치매 환자의 약 복용 관리를 위한 Aloc 시스템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직접 개발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문식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우수 성과 홍보 등 다양한 LINC 3.0 사업의 우수성과를 홍보했다. 또한 피부미용전문가 주문식교육과정 학생들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엑스포에 참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3일 열린 '2022년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요양시설 포도원(관계인 김영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 13개 소방서가 참여해 화재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요양병원, 냉동·물류창고, 전동시중)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검증 및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평가내용은 △화재 통보 및 초기 진압 등 초기대응 능력 △비상 대비계획 △화재 대비 △관계인 관심도 등 4개 평가분야에 세부 평가항목 13개 지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한의사회,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직원 응원

김제시 한의사회(회장 조흥구)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고 있는 김제시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는 10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 관내 한의원 및 한방병원 한의사 20여명과 함께하는 김제시 한의사회의 조흥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연일 고생중인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격려물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윤주 김제시보건소장은 "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외입양인들 감동시킨 특별한 밥상

산동면 상신마을서 남북통일 음식나눔

남원시 산동면 상신마을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마을 하늘모퉁이(대표 고광자)에서 해외입양자, 사)하녀여성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통일 음식나눔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하나여성회 회원과 해외입양자 1:1 결연 맷기를 시작으로 하늘모퉁이 견학, 남·북통일 밥상 토종 씨앗 나눔, 전통장류 고추장 만들기 체험 순으로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밥상에는 북한 음식과 상신마을 향토음식 20여 가지가 차려진 특별한 밥상으로 해외입양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또한 토종 씨앗 심기는 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결연자를 잇는 특별한 매개체로, 심은 화분은 회원들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 토종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을 해외입양인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인 유대감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사)하나여성회 유육이 대표가 옥수수 농사 500평을 기부하여 이를 회원들이 나서서 수확하고 판매한 금액이 증자본이 되어 2019년부터 매년 2회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해 올해로 4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유 대표는 "먼저 고향이 그리워 귀국한 해외입양인들이 가족을 찾거나 대한민국에 잘 정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광자 대표는 "남북통일 밥상은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차린 건강한 밥상과 회원들이 준비한 북한 음식이 어우러져 더 의미 있고 특별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학드론축구대회 성료

우승 - 우석대 AIR브레인 준우승 - 전주대 A팀 차지

제3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가 지난 2~3일 전주대학교 드론축구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16개 대학 23개 팀이 참가해 드론 조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는 LINC3.0사업단의 드론 공융협업플랫폼으로 전국 3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드론 스포츠 경연을 통한 드론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설립됐다. 이는 전국대학 간 드론 교육 정보의 공유,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각 대학 드론 스포츠 창단 및 활성화, 드론 관련 신사업 공동 개발, 전국 단위 드론 스포츠 대회의 공동 추진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드론 스포츠를 통한 드론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성과를 인정받아 우승은 교육부 장관상, 준우승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으로 격상된 이번 대회의 우승은 우석대학교 AIR브레인팀, 준우승은 전주대학교 A팀, 3위는 대한드론축구협회장으로 한국교통대학교A팀, 4위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회장으로 전주대학교팀이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전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드론 스포츠를 통한 드론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성과를 인정받아 우승은 교육부 장관상, 준우승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으로 격상된 이번 대회의 우승은 우석대학교 AIR브레인팀, 준우승은 전주대학교 A팀, 3위는 대한드론축구협회장으로 한국교통대학교A팀, 4위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회장으로 전주대학교팀이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사랑의 김장 봉사 전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음환 이하 재단)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무주군 부남면 장애인복지시설인 '하은의 집'을 찾아 김장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재단 및 사회사 직원 등 20여 명은 남·여 생활관 전기·설비 등 시설을 점검하고 김장재료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참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향교동, 김장김치 나눔 활동

남원시 재향군인회 향교동협의회와 재향군인회여성회, 향교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직접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담긴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아 전달했으며, 조용봉 재향군인회 향교동협의회장은 3년째 400만원 상당의 김장재료 일체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좋은세상엔제이 이화영 대표, 장학금 기탁

(유)좋은세상엔제이(대표 이화영)는 지난 4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청을 찾은 이화영 대표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잇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읍시에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탁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홍성욱)는 지난 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화수)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9월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로 취임한 이동진 이사도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정읍=김대환 기자



찾아가는 백운면 노인대학 입학식

진안군노인회(회장 구동수)는 지난 4일 백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6기 찾아가는 백운면노인대학(학장 한은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 대학생 42명을 비롯해 전춘성 군수, 구동수 진안군노인회회장, 한은숙 대학장과 백운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선서, 학사계획 보고, 노인 대학장의 입학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지역 어르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량면 노인대학을 시작으로 부귀면, 성수면, 주천면, 동향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제6기 백운면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 백운면 노인대학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13회 3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주요 과정은 교양 시사, 건강관리, 웃음치료, 현장학습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나이가 무관하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계속되는 한 영원한 젊음과 청춘"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등 취약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와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정경진)는 지난 3일 관내 취약농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10년 '농협중앙회와 법무부 간 체결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매년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 돌봄대상자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오래된 집이라 사용이 불편했던 장판을 교체해줘 깨끗하고 편하게 자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도 받고 농협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정영선 지부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노후된 주거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지사보험, 주거환경개선 봉사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상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3가구로, 겨울철 한파 대비 방풍막 설치 및 수돗가 경사 보수 1가구, 출입구 경사로 보수 1가구, 도배·장판 및 이동식 계단 설치 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해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희 무주읍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더불어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정은 위원장은 "위원들의 협력으로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어르신들이 깨끗해진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2년 11월 28일 52(목)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